

## 세계미술계, 우리 젊은 작가들에 매혹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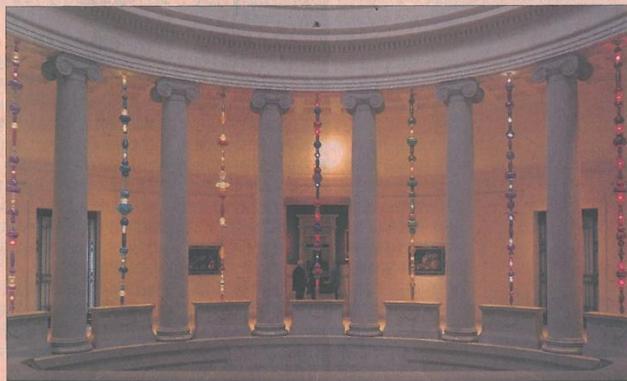
9 May, 2016 | 김아미 기자

### Life & Culture

매일드경제  
2016년 5월 9일 월요일

28

## 세계미술계, 우리 젊은 작가들에 매혹되다



◀ 미국 마이애미 사교계 거물 데이비드 그릇맨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마리킴 사진. [출처=데이비드 그릇맨 인스타그램]  
▲ 보스턴미술관 그릇맨에서 선보인 최정화 작가의 '연금술(Alchemy)'. ©Choi Jeong Hwa, courtesy Park Ryu Sook Gallery/ Museum of Fine Arts, Boston

미국 마이애미 사교계 거물 데이비드 그릇맨(David Grutman)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의 여성 팝아티스트 마리킴의 작품을 올렸다. 마리킴 작품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이 작품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완전히 반해버렸다(I received a @x.marikim.x today as a gift and I can't stop staring at it. Blown away)는 글과 함께다. 12만4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파워 인스타그램메이커도 한 그릇맨이 올린 마리킴 작품에 770개의 좋아요가 붙었다. '놀

랍다(Amazing)', '멋지다(Super dope!)'는 댓글도 함께 따라 붙었다.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의 젊은 작가들 작품이 해외 아트쇼에서 스폟라이트를 받으며 유수 미술관 전시에 초청돼 호평받고 있다. 단색화를 필두로 70~80대 원로 작가들이 떼돈 아재복 은기가 30~40대 젊은 작가들의 '윗복'까지 퍼져가는 양상이다.

▶영국 억만장자가 주목하는 마리킴=지난 1월

마리킴, LA아트쇼서 작품 다 팔려

북부호도 소장...해외서 더 잘나

양혜규, 풍피두등서 예정 전시만 10개

최정화·한석현도 유수미술관 초청 호평

미국 LA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LA아트쇼(1월 28~30일)'에서 한국 단색화 전시와 함께 팝아티스트 마리킴의 특별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 LA, 뉴욕에 근거지를 둔 한국 화랑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작가들을 소개했는데, 마리킴은 이 아트쇼에서 자신의 작품을 '솔드아웃' 시켰다.

마리킴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은 작가다. 최근 자동차 경주 '포뮬러 원(F1)'을 운영하는 영국의 억만장자 버니 에클레스턴(F1)을 필두로 마리킴의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의 건축 갤러리에도 작품 주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마리킴은 호주 멜버른 RMIT대학에서 멀티미디어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크리에이티브미디어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2007년부터 눈 큰 캐릭터 아이돌(Eyedoll) 그림으로 국내·외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학교재래 갤러리(서울 종로구 삼청로)에서 연 대규모 개인전에서 '아이돌' 시리즈를 포함한 회화, 배운, 조각 등 190점을 모두 솔드아웃시키기도 했다.

▶해외 유수 미술관이 주목하는 최정화, 한석현 양혜규=해외 유수 미술관에서 3040 작가들의 선전도 두드러진다.

설치미술가이자 한국형 팝아티스트로 통하는 최정화, 한석현 작가는 미국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4

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석달 넘게 계속되는 '메가 시티 아시아(Megacities Asia)'전으로, 보스턴미술관이 최정화, 한석현 등 한국 작가를 포함, 아이 웨이웨이, 수브드 굽타 등 아시아 메가시티를 거점으로 작업하는 작가 11명을 초청해 미술관 개관 이래 최대 규모로 꾸민 현대미술전이다.

이 전시에서 최정화 작가는 싸구려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한 신작 '연금술(Alchemy)'을, 한석현 작가는 버려진 막걸리병 등을 쌓은 '슈퍼네추럴(Super-Natural)'을 선보여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여성 설치미술가 양혜규는 독일 함부르크 소재 유사값은 근현대미술관인 콘스트랄레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콘스트랄레가 올해 재개관하는 신관 주요 전시공간에서 국제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현대미술가들을 1년 주기로 소개할 예정인데, 이러한 연례 기획의 첫 참여 작가로 양혜규가 선정된 것. 양혜규는 내년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에서 블라인드 작업인 '슬프릿 워킹' 연작을 비롯, '잠들 조각 연작' 등 신작 17점을 선보인다. 양혜규는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2012년 독일 카셀도쿠멘타 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여성 작가다. 국제갤러리 측은 "오는 6~7월 프랑스 풍피두센터를 비롯해 예정된 전시가 10개 가 넘는 정도로 해외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아미 기자/amigo@heraldcorp.com